

#### 4장 인물 캐릭터 창조(1)

\*인물(캐릭터)에 관계된 용어들

일관성(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 전통주의 소설

개연성(말이 되어야 한다)

평면적 인물: 단순하다. 변하지 않는다.

입체적 인물: 복잡하다. 사람이 변한다

2D(2 Direction): 이차원. 만화나 일반평면게임화면. X축과 Y축으로 종이 위에 사각형

3D(3 Direction): 삼차원. 입체형식. X축 Y축 그리고 Z축으로 그린 입체사각형(육면체)

주동적 인물(리더)

수동적 인물(추종자)

주인물

주변인물

전형적 인물-보편적 인물: 대표, 평범한 놈

개성적 인물-특수한 인물: 아웃사이드, 이상한 놈

나를 아는 몇몇 사람들은 나를 싸움꾼이라고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싸움꾼이 아니다. 누가 나를 아는 게 싫어서 눈에 짝 띄는 싸움질은 되도록 피했다. 단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놀린 놈들만 두들겨 뺐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낮간지러운 이유로 팬 건 아니다. 쪽팔리고 열 받아서 뺐다. 진짜 난쟁이인 아버지를 놀렸든 그 핑계로 나를 놀렸든.

- 김려령 『완득이』

땡-땡-땡-땡-땡- 시간을 알리는 패종시계 소리에 신지의 몸이 울린다. 땡-땡-땡-땡- 점점 커져 가는 패종시계 소리에 신지의 몸은 금이 가다가 마침내 부서져 내린다. 시계를 거부하는 뭔가가 신지의 몸을 벗고 밖으로 나가 버린다. 신지는 자신의 팔과 다리를 본다. 사마귀의 다리같이 흉측한 곤충의 다리가 보인다. 가슴부터 배까지 무수한 다리가 달려 있다. 가슴과 배가 검붉은 빛이다. 맨질맨질하다. 벌레다!

-김진경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

열일곱 살이 되는 날 아침, 나는 날이 바짝 선 가위 앞에 앉아야 했다. 아침 내내 솟돌에 무더진 날을 갈리며 풀벌레처럼 울던 가위의 민날은 시퍼렇게 되살아나 입을 꼭 다문 채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위의 두 민날이 내 정수리 위에서 서로 교차하며 머리카락 끝을 양칼지게 자르는 순간, 나는 추운 날 오줌을 쏘아 낸 것처럼 진저리를 쳤다.

할아버지는 다부지게 가위를 움직였다. 할아버지는 이제 겨우 세상 구경을 한 내 가여운 머리카락을 모조리 쳐낸 뒤, 목덜미에 숨죽이고 있는 잔털까지 남김없이 밀어 버릴 것이다. 할아버지는 열일곱 살의 머리카락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욕망이 뒤엉켜 자라고 있어 그것들이 세상 밖을 기웃거리기 전에 무질러야 한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능갈맞은 가위도 아직 사내가 되지 못한 사내아이의 욕망을 뿌리째 뽑아낼 수는 없었다. 도리어 밤마다 자라나고 아침마다 솟아나는 사내아이의 머리털은 가위 민날에 단련되어 쇠어졌다.

- 김혜원 『열일곱 살의 털』

나는 지금 짝사랑에 빠졌다. 예방접종도 없는 사랑의 열병에 걸린 것이다. 이 고약한 열병이 내 몸과 마음을 시시각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유치찬란하고 아리송한 감정들이 엮치락뒤치락하며 나를 몰아가고 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다 시들하기만 하고, 하얀 얼굴에 입꼬리가 살짝 말려 올라가며 웃던 그 오빠의 싱그러운 웃음만 자꾸 생각한다.

- 이옥수 『내 사랑, 사복』

내 이름은 비라이마. 나는 뾰띠(작은) 니그로(흑인)다. 단지 어리고 까맣다는 사실 때문에 뾰띠 니그로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뾰띠 니그로라고 불리는 건 내가 프랑스어를 서툴게 말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거다. 아무리 어른이어도, 늙은 사람이어도, 그리고 흑인이 아닌 아랍인이거나 중국인이어도, 심지어 백인인 러시아인이거나 미국인이거나 할지라도 프랑스어로 말하는 데 서툴면 다 뾰띠 니그로다. 마치 어린 흑인처럼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말하자면 뾰띠 니그로는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았다.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다 그만두었다. 내가 교실을 떠난 건, 학교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학교를 다니는 건 늙은 할머니가 꺾는 방귀만큼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아프리카 흑인 원주민이 뭔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 ‘늙은 할망구의 방귀만도 못하다’라고. 늙고 힘없는 할머니의 방귀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그렇게 고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 아마두 쿠루마 『열두살 소령』

아버지가 일을 안 나가니까 동준이는 처음 며칠은 참 좋았다. 아버지와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잘 때도 무섭지 않고. 그러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지면서 아버지는 잔소리가 늘었다. 밖에 나가면 동네 아저씨들과 싸우는 일도 잦아졌다. 술을 많이 마신 날은 동수를 보고 집 나간 어머니를 빼담았다고 트집을 잡아 못살게 굴었다. 여름철엔 영종도 신공항 공사장에 가서 날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일마저도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니었다.

- 김중미 『팽이부리말 아이들』

어머니가 그녀 일을 흉내내어 나를 자주 웃겼던 것도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맨 처음 그녀를 다잡아가면서 안팎 범절과 행실을 가르치고 다스린 이도 할아버지였다. 본디 사람 보는 눈이 달랐던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자 대뜸 짝이 있겠다고 판단하여 나이부터 물었었다.

“그래 너는 몇 살이나 되었다더냐?”

그러자 그녀는 아무 어림성 없이 아는 대로 대꾸했다.

“지 에미가 그러는디 제년이 작년까지장은 제우(겨우) 여섯 살이었대유. 그런디 시방은잘

몰르겠슈.”

“넌가 넌 나이를 모른다 허느냐?”

“예. 위편 이는 하나 늘어서 일곱 살이라구 허던디 또 누구는 하나 먹었응께 다섯 살이라구 허거던유.”

“폐엥-- 그래 넌 에민가 작것인가는 요새두 더러 보이더냐?”

“접때 달밭 대감택(외가)에 왔는디 봉께. 유통치마를 입구. 머리는 헛사시까미를 허구. 근사헌 우데마끼두 차구..... 여간 하이카라가 아니던디유.”

“그래 그것은 시방두 장(늘) 술고래라더냐?”

“그리기 접때두 취해서 죄 애비허구 다투다가 고쟁이 바람으루 찢겨났었슈.”

“폐엥-송헌.....”

할아버지는 그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철부지하고 이러니저러니 하기 싱거워서 아니었다. 굴지의 지주였던 탓에 온갖 잡기와 유흥에만 몰두했던 나의외숙한테 ‘대감’이라는 칭호를 썼기 때문이었다. 그녀로서는 어쩔 수 없을 말버릇이었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무엄한 말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잘 참았다.

“그래 넌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더냐?”

“먼젓것인디유.”

“먼젓것이라..... 아직 이름이 읊더란 말이렷다.”

“.....”

“넌 에미가 너를 즘춘 웅기 틈목에서 풀었다더구나..... 오날버텀 이름을 웅점이라 허거라. 웅점이 무던허졌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즉흥적인 작명을 했는데, 호적부에도 그대로 올라갔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었다.

웅점은 어른 앞에서는 소견이 넓었고 아이들에게는 남달리 인정이 많았다. 그릇을 잘 깨는 달링쇠였고, 참새못잖던 수다쟁이이기도 했다.

- 이문구 『관촌수필』

걱정이가 어릴 때부터 사납고 심술스러워서 아래위의 앞니가 갓 났을 때에, 무엇에 골이 나서 우는 것을 그 어머니가

“성가시다, 우지 마라.”

하고 꾸짖으며 젖을 물리었더니 걱정이가 젖을 이로 물어서 젖꼭지를 자위가 돌도록 상한 일이 있었고, 불과 너댓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와 겸상하여 밥을 먹는데 저의 아버지에게만 국그릇을 놓았더니 걱정이가 아무 말도 없이 뜨거운 국그릇을 들어서 저의 앞으로 옮겨 놓은 일이 있었다. 이와같은 일이 비일비재라

“저것이 장래 크면 무엇이 될라노.”

“저것이 커서도 저러면 참말 걱정거리다.”

하고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 외조모뿐만 아니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둘이만은 아들이 귀여워서

“사내자식이 그래야지, 계집애 같아서야 무엇에 쓴담.”

하고 걱정은 고사하고 도리어 칭찬하였다. 그리하여 집안에서 걱정을 꺾을 사람이 없어서 어린 걱정이의 기가 자랄 대로 자랐었다.

- 홍명희 『임꺽정』

남 얘기는 그만, 실은 나부터가 타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할 만한 주제가 못 되면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작으나마 장사 거리라도 가진 젊은 남자보다는, 나아말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녀석으로 보일 터였다.

말을 더듬기 시작한 것은 사 년 전부터다. 책을 소리 내어 읽을 때는 조금도 망설이는 법이 없고 발음도 새지 않는다. 오랜 시간 공들여 머릿속 생각을 종이에 적어 넣은 뒤 그것을 소리 내어 읽을 때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 대신 눈앞에 글이 없으면 예, 아니요 수준의 간단한 대답도 명쾌하게 하지 못한다.

- 구병모 『위저드 베이커리』